데스크시각

증오의 정치에서 대통합의 정치로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제1야당의 대표가 백주에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테러 사건이었다. 유력 정치인들의 피습 사건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 피습을 받았고,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엔 정치인에 대한 피습이 달걀이나 물세례 정도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다면, 최근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와 둔기 등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는 최근 여야 정치권의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영과 팬덤 정치가 갈등 원인

진영 대 진영은 물론 진영 내부에서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풍토가 테러라는 극단의 형태로 표출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각종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쉽고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제 상대 진영을 향한 증오가 언어폭력을 넘어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양 극단으로 갈려 진영 대립이 격화되기도 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이 대표 지지층은 여권 인사들과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한국 정치의 진영 간 대립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에 따른 팬덤정치도 극에 달하는 등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가 혐오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심화, 민주주의 위협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우려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의 갈등과 혐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

진영 간 대립과 팬덤정치 등 극단의 정치는 정치권이 만들어 낸 부산물이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에 번져 있는 진영 대립 구도에 편승,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만 노리는 정치 풍토가 고착한 결과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여성과 남성으로, 젊은 층과 노년 층으로 갈라치기 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권이 만들어 낸 폐해다.

또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도 극단적인 증오 정치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팬덤정치는 민심이나 상식에 의한 정치 행위가 아닌 극성 지지자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정치 행위를 뜻한다. 극우와 극좌 등 정치의 극단화를 불러올 수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정치평론가들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강성 발언을 한 뒤 소수의 핵심 지지층을 얻으며 성장하는 것이 정치권의 룰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거대 정당인 여야가 팬덤정치에 빠지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줄어들면서 민주적 정당이 아닌 눈치만 보는 1인 체제의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따라서 극단의 정치로 인한 증오의 정치와 팬덤정치가 가져오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공멸의 길을 갈 수 있다. 극단적 팬덤정치에 기대는 정치인과 정당은 중도와 부동층의 이탈을 가속하고, 타협과 공존의 민주적인 가치가 상실돼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신'에서 해법 찾아야

지금이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만 옳다는 진영 논리와 팬덤정치에서 벗어나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야당 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영수회담을 통해 극단의 정치를 상생 정치로 변화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난무한 가운데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한 고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리게 된다.

마침 지난 6일이 김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증오에 기반한 정치 보복의 금지와 대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화해 통합론'을 강조해왔다.

모진 고난과 핍박의 세월을 보냈지만 복수가 아닌 용서의 덕목을 행동으로 옮겼고, 이를 통해 정쟁의 싸움터였던 한국 정치를 21세기형 상생 윤리의 구현장으로 바꾸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볼 때 김 전 대통령의 대통합 정치는 지금의 정치인들이 꼭 배워야 할 교훈이다.

은펜칼럼

의사 부족 국가 해법은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치료가 지연되면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의료 영역으로 응급, 중증, 외상, 심뇌혈관, 분만, 감염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와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의료가 지금은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지만 그 미래는 밝지 않다. 이유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더 부족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 부족에 대한 근거는 OECD 보건통계 자료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2.51명, OECD 평균은 3.6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다.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포함)의 의사 수는 1.24명, OECD 평균 2.17명에 비해 적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보다 그 편차는 줄어든다.

2021년 OECD 가입 국가는 38개국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입되어 있지만 동유럽과 남미 일부 국가들도 가입돼 있어 모두가 선진국은 아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인 G7 국가들의 보건의료 통계와 비교하자는 의견도 있다. G7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23명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은 43명이다. 이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 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살릴 수 있는 사망자 수를 나타낸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필수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스위스 39명에 이어 43명으로 2위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57명으로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보다 14명이 낮았다. 통계상으로 의사 수는 분명히 부족한데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 100만명당 병원 수 79.2개,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2.6개로 각각의 OECD 평균인 29.9개와 4.4개보다 2.6배 정도 많다. 2위 그룹의 국가(네델란드, 독일, 핀란드 36.1개)들보다도 2배 정도 많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 접근성과 최상의 의료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평균 16.1명으로 최하위이다. OECD 평균은 90.9명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하위 국가(네델란드, 폴란드, 핀란드 39.2명)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병원 의사들의 일이 많고 힘들다는 의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를 지키며 버텨온 것은 병원의 고강도 의료시스템이다. 의사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강요된 희생으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왔다. 의사를 늘리려고 한다면 필수의료를 지켜온 병원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 병원의 의사가 부족한 이유 무엇일까? 강도 높은 업무와 법적, 물리적 보호시스템의 부재 등도 있지만 병원 외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도 그 중 하나이다.

국가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확대로 이어질지는 졸업생들의 전공 선택의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2022년 전국의 전공의 정원은 3031명이다. 필수의료 분야 정원은 약 1150명이지만 75%인 863명, 전체 전공의의 28% 정도만 지원하였다. 지금의 사회적인 의료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공 선택의 추이 또한 바뀌지 않을 것이며 필수의료 분야로의 지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의과대학 정원이 4000명이 되어도 필수의료 분야는 현재 지원율 28%로 추산하면 현재 정원 수준인 1140명 정도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일부 수가지원도 필요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이고 계획된 정책이 더 필요하며 그 바탕은 의료수가의 개선이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모든 정치권의 정쟁의 결과인 의료수가 개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고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의 불신의 간극을 신뢰와 희망으로 채워나가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 고

세상을, 사람을 잇습니다

서일권
세상을이어가는끈 상임이사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2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 도시 빈민 여성들을 위한 '삶 기술학교' 직업교실이 문을 열었다. 5기까지 네일아트 수업이 진행됐고 교육생 중 3명이 창업, 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리안 드림'이 최대의 꿈인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열심히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와 몽골 학교에는 4곳의 '아시아 우정 도서관'이 있다. '모든 어린이에게 배움의 기회를!'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개관한 공간이다. 캄보디아 광주교육문화센터에서는 광주지역 중·고등학생·대학생 및 대안학교 학생들의 장·단기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국제 NGO '세상을이어가는끈'(BAND FOR GOOD·이하 세끈)은 지구촌 곳곳의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병렬로 잇고자 모인 광주 사람들의 소박한 모임으로 출발했다. 2012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2013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1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국제 자원활동을 통해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까지 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의료·문화·교육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고 연대하는 '광주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해외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 가능한 연대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2019년에 캄보디아, 2022년에는 몽골 현지에 지부를 설립해 명실상부한 국제 NGO로서 활동하고 있다.

세끈이 국제자원활동을 통해 현지의 삶과 현실을 체험할수록 느끼는 점은 빈곤과 질병·교육이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인데, 이 빈곤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교육이라는 점이다. 결국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통해 자립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다른 미래'를 약속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에서 배움의 과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해 도서관과 컴퓨터, 직업교실과 같은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끈의 주요 활동은 국제연대사업이 있다. 의료의 경우 안과, 치과, 내과, 외과, 통증의학과, 산부인과, 한방까지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이 동행해 무상진료를 담당해 오고 있는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진료받기 어려운 안과와 치과 진료는 언제나 기다리는 현지 환자들로 장사진을 이룬다.세끈 문화예술위원회에 소속된 예술가 회원들과 연대 단체가 함께하는 문화공연은 성악·한국 전통무용·국악 연주 등으로 감동을 선사했고 현지 어린이들이 선보이는 자국 전통공연과 K팝 댄스 무대는 양국 문화교류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세끈은 국제 구호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2021년 쿠데타로 생계가 어려운 미얀마 양곤시 인근 민주화운동 시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했고 미얀마 국내 난민캠프 여성 경제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재봉틀과 버섯재배 기술교육'을 아시아여성네트워크와 함께 협력해 진행했다. 또 2022년 우크라이나 평화기금, 2023년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전쟁 난민 지원을 위한 평화기금 전달은 국제평화를 바라는 세끈의 염원을 담은 것이었다.

국내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주민 공동체 자립지원을 위해 이주민 지원 단체를 후원하고 있고 2017년부터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종교·출신국가·피부색 등을 떠나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평화 산타' 행사를 진행중이다. 또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협력해 무상진료와 송년 음악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재능기부센터 용봉점에서 한달에 한 번 열리는 책방음악회는 세끈 회원 뿐만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끈은 연대와 나눔으로 대동 세상을 열었던 '광주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 세상과 사람을 잇는 마음으로 국제자원 활동과 국내 이주민 공동체 지원, 해외지부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런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원활동부터 시작해 정기 후원,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이 이어지면 좋겠다.

社說

위기에 더 강해진 민주당 안팎 결집 효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당 대표의 피습과 전직 당 대표의 탈당 예고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당 안팎에서 결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결집에는 이재명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탈당 예고 등으로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돌발적인 피습사건을 계기로 이 대표에 대한 '정치역정 동정론'이 일면서 오히려 원심력 대신 구심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재명 결집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의 구심력은 여야 전직 대표들이 신당 창당에 참여하는 제3지대론이 관심을 끄는 이번 총선에서 예상밖 현상이라고 할 만하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부동층이 늘고 신당 창당이 이뤄지면 기존 정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에선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위기에 더 강해진 것은 이낙연 전 대표의 명분없는 창당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예고했는데 세를 형성하기 보다 비판 여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제는 친문(친 문재인)과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어제 이 전 대표를 향해 "사람이 없고, 세력이 없고, 지지 기반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 없다"며 이른바 '4무(無)론'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안 맞는다고 해서 당을 버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이 2월 말이나 3월 초로 미뤄지면 당내 총선 주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낙연 신당의 인적 구성 일정과 민주당 경선 일정이 맞물리면 시간상 민주당 경선에 불만을 품은 주자들의 신당행도 쉽지 않다. 민주당의 결집 효과가 신당 파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택시업계 상생 노력으로 서비스 개선해야

광주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전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해 택시기사의 근로조건이 악화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일운전(1인 1차) 기준 '운송수입금 기준액'(기준액)을 2만8000원 올렸다. 기준액이 종전 19만8000원에서 14% 인상됨에 따라 법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22만 6000원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분과 최저임금, 유류비 상승 등 경영 사정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들은 경기악화로 승객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측의 기준액을 채우지 못해 운전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루 수입이 기준액을 넘지 못할 경우 매월 받는 고정급이 삭감되는 임금 구조이기 때문이다. 5년째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기준금이 20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도 기준금을 채우는 기사는 전체 30%뿐이었다"면서 "기준금 이상을 채우는 기사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50%는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했는데 체감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광주지역 법인택시 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통을 분담해온 택시기사들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측의 기준액 인상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택시기사들의 이직을 부추기고 결국에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에도 택시요금 인상을 용인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택시업계는 기준액 인상을 단행한만큼 택시기사들의 실질 소득 향상, 근로여건 개선 등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광주 대중교통의 한 축인 택시업계 노사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無等鼓

뼈 곰국

소의 네 다리뼈(사골·四骨)를 장시간 우려낸 국물인 사골 국(육수)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뼈 곰국'에 대한 사랑은 유별난 것 같다. 곰국이 개별로 상품화돼 팔리고 있고, 찌개와 탕 심지어는 떡국까지 모든 요리의 기본 육수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니 말이다.

뼈 곰국은 수천 년 전(석기시대)부터 전 세계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이다. 인간이 불을 사용해 요리했을 때부터 만들어진 음식으로 보인다. 고기를 다 먹은 다음 뼈 골수를 빨아먹다가 급기야 고아 먹었던 것이 시작인 듯 싶다.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관절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뼈 곰국을 처방한 기록이 있다. 또 16세기 영국의 문헌에는 오늘날 우리가 먹은 일반적인 방식의 뼈 곰국 요리법이 담겨 있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 이후 뼈 곰국을 '소고기 차'라고 부르며 즐겨 먹었다고 한다.

식당의 기원을 뼈 국물에서 찾는 견해가 있을 정도다. '미국의 주방'이라는 요리 역사책을 쓴 미국의 역사학자 리비 오코널에 따르면 중세 시대 유럽에서는 뼈 곰국을 '레스타우러(Restaurer)'라고 불렀다.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음식'이라는 뜻인데 레스타우러는 나중에 '식당'을 뜻하는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로 변한다. 식당의 어원이 뼈 곰국이라는 것이다.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고 환경오염에 따른 곰국의 유해 논란이 일면서 주춤해졌지만 뼈 곰국의 인기는 여전하다. 뼈 곰국의 매력은 뼈를 끓일 때 나오는 영양소인 인체 단백질 '콜라겐'에 있겠지만, 장시간 고면서 배어난 진한 국물의 기분 좋은 풍미를 빼놓을 순 없다.

그런데 요즘 뼈를 곤 진한 국물을 빗댄 '찐팬'이나 '골수팬' 혹은 '~빠'라는 표현이 왜곡돼 사용되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 정치계와 유튜브 등 일부 언론이 성향별·세대별·계층별 반목과 이전투구를 부추길 때가 그렇다. 사골 육수의 진하고 고소한 맛도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변할 수 있듯 진정한 믿음(신념)도 편향과 맹신의 '조미료'가 더해지면 자칫 사람들이 멀리하는 '분노 유발자'나 '악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